

초등생 사교육비 13.4% ‘폭증’ 교육부 “돌봄·보육 부담 때문”

“학력결손 등 원인...상반기 내 경감 방안 발표”

초·중·고생들의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교육부가 올해 상반기 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실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사교육비 고공행진...9년만 종합대책 마련 착수

심민철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브리핑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올해 상반기 중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전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도 23조4000억원 대비 2조 5000억원(10.8%) 증가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 수준이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전체 학생 기준으로 2021년 36만7000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11.8%,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평균 52만4000원으로 전년도(48만5000원) 대비 7.9% 늘어났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초등학생이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10조5000억원 대비 13.1% 상승해 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7조1000억원(11.6% ↑), 고등학생은 7조원(6.5% ↑)으로 조사됐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이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4만4000원(13.4%) 증가했다. 중학생은 43만7000원, 고등학생은 4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11.8%, 9.7%로 나타났다.

◆초등생 5명 중 4명은 사교육...“돌봄·학력결손”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11조9000억원)은 코로나19로 학원 운영도 제한됐던 2020년(7조6000억원) 대비 56.6%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학생(31.5%), 고등학생(11.1%)보다 크게 높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유독 크게 높아진 배경으로 돌봄 부담과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단에 따른 학습결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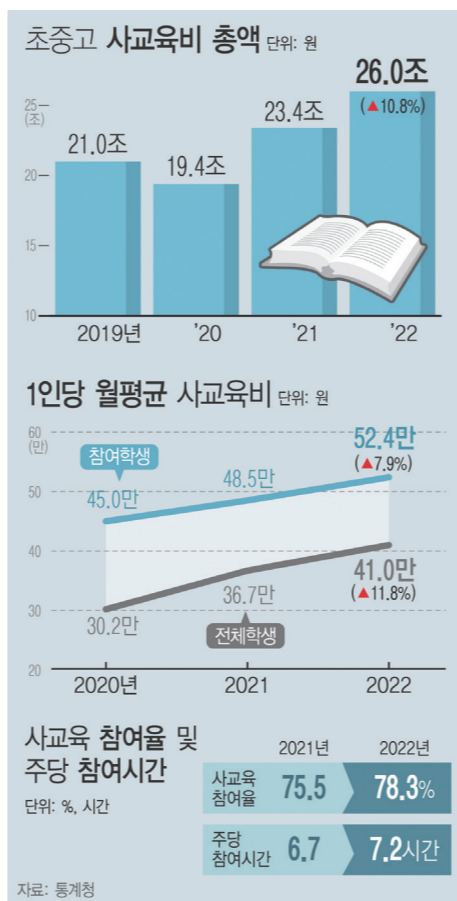
심 국장은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초등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언어습득, 문해력, 짧은 글을 쓰게 되다 보니(등교수업 등) 공백기에 학력 결손 보충(수요)이 학부모들에게 상당히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초등학생이 85.2%로 전년 대비 3.2%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76.2% (전년대비 3%p ↑), 고등학생은 66%(1.4%p ↑)였다.

초·중·고생 전체의 국어·영어·수학 등 일반 교과 대상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1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다. 예체능과 취미, 교양의 1인당 사교육비는 9만8000원으로 같은 기간 17.8% 상승했다.

일반 교과 사교육에서 수강목적은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보육, 친구 사귀기 등’이 18%로 전체 평균(11.6%)을 상회했다. 예체능도 초등학생은 ‘보육, 기타’가 17.4%로 전체 평균(13.9%)보다 높았다.

심 국장은 이를 인용하며 “사교육이나 공교육이냐를 떠나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초등학생은 있다”며 “(학부모가) ‘돌봐 줄 수 있다면(사교육 업체에) 가겠다’고 보는 거고, 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고 강조했다.



◆‘더 벌수록 더 쓴다’ 여전...사교육비 격차 3.7배

예년과 비슷하게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64만 8000원) 대비 300만원 미만(17만8000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지출 격차는 약 3.7배로 전년도와 같았다.

참여율도 모든 소득구간에서 늘었는데,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88.1%인 반면 300만원 미만은 57.2%로 30.9%p 벌어졌다. 같은 소득구간에 따른 전년도 참여율 격차는 32.2%p였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59만6000원)과 가장 적은 전남(26만 1000원)의 지출격차가 약 2.3배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김재환기자

오늘 전국조합장선거...광주·전남 200명 선출

투표소 광주 22곳·전남 276곳 설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코로나 확진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광주·전남 296곳의 투표소(광주 22곳·전남 276곳)에서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200명의 농·수·산림조합장(광주 18명·전남 182명)을 선출한다.

7일 광주·전남선거관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광주는 18명(단독 등록 무투표 당선 2명 포함), 전남은 182명(무투표 당선 52명 포함)을 선출한다. 무투표 당선인을 제외한 선출인은 광주 16명, 전남 130명 등 총 146명이다.

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란에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 참관인 참여 속에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구·시·군마다 설치한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과 투표시간은 관할 시·군 선거위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정승호기자

‘자고나면 산불’...김영록 전남지사, 행정력 총동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7일 산불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연일 발생하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올 들어 6일 현재까지 전남지역에서 27건의 산불이 발생해 55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건이 늘어난 규모다. 산불 발생 원인은 논밭두렁 소각 7건, 쓰레기 소각 6건, 입산자 실화 3건 등 대부분 주민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산불방지대책본부로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도청 공무원 시·군 전담제를 지시했다.

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을 총동원하고, 산불 감시요원 집중 배치 등 예방·계도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극 대응해 산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환기자

www.nec.go.kr)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나 두 후보자 이상의란에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각 후보자가 선임한 개표 참관인 참여 속에 개표를 진행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장선거 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해 구·시·군마다 설치한 격리자 특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표방법과 투표시간은 관할 시·군 선거위 또는 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정승호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7일 오전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비상대책 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는 방송 홍보, 재난문자 송출,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산불 위급성을 알리는 계도 캠페인을 집중 펼치고, 산림보호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등 무관용으로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감시원 근무 시간 연장, 녹색마을 전개 등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